

개념 노트 1.3



개념과 기출

개념 노트를 듣는 너에게

너의 선택이 단순히 클릭 한 번일 수도 있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해 줘서 고마워. 이것이 절대 짝은 인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 이 강의를 절박하게 설명하자면 '수능 모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개념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중에 많은 개념 교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개념을 다루지 않거나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 교재를 만들게 되었어. 그동안 이 강의를 통해 수 년간 아이들과 함께 해 왔고 또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 나를 탄탄한 강사야. 너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준다면 선생님도 네 기대에 부응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인강에 수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을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맙고,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너에게 혼동을 준다면 불필요한 개념을 설명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게. 2017년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완주하자. 너를 믿고 오늘도 펜을 잡자. 파이팅!

너의 옆에서 국어강사 박정범

하나. 시

개념 06. 이미지

빈출 선택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

빈번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

추상적 대상(=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형상화)하고 있다.

이미지의 효과

1. 생동감을 준다.
2. (시에서) 정서를 구체화(=형상화)한다.
3. 여운을 주기도 한다.

1. 감각적 이미지 (=심상, 감각적인 표현)

- 1) 시각적 이미지 : 색깔, 모양
- 2) 청각적 이미지 : 소리
- 3) 촉각적 이미지 : 온도, 감촉
- 4) 후각적 이미지 : 냄새
- 5) 미각적 이미지 : 맛
- 6) 공감각적 이미지 : 감각의 전이

2.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 움직임이 잘 드러난 표현. 활발한 느낌을 준다.

정적 이미지 :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3. 생성 이미지와 소멸 이미지

생성 이미지 : 대상이 생겨나는 모습. 소망.

소멸 이미지 : 대상이 사라지는 모습. 좌절.

4.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

상승 이미지 : 위로 올라가는 모습.

하강 이미지 :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 대립적 이미지는 수능에서 자주 물어본다. 이미지가 서로 상반된다면 ○, △로 구분하며 읽도록 한다.



개념 적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년 6월]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선 듯,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쪼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짐을 짊어질 열을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 홍인우, <관동록>

1.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년 6월]

[A]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 김동명, 「과초」-

[B]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2.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O , X)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9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키운.
- * 아무울 만, 니코리스크: 오희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춥고 차가운.

3.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년 6월]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 김소월, 「나의 집」 -

4.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년 9월 A형]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5.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5년 수능]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곽재구, 「은행나무」-

6.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얗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달력.

7.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O , X)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년 9월 A형]

[A]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B]
 온몸이 으스스하기도
 으스스하기도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8.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년 수능]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답이나 하오리라

- 홍순학, 「연행가」-

9.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O , X)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년 수능]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포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memo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정답

memo

- 1) O
- 2) O
- 3) O
- 4) O
- 5) X
- 6) O
- 7) O
- 8) X
- 9) X
- 10) ②